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尹대통령, 반도체 공급망 축 ASML 방문…“4차산업 원동력”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했다. 본사를 방문한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목표로 삼은 데 따른 행

사용되는 EUV 노광(露光) 장비를 전 세

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ASML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반도체 동맹’ 구축 행보…ASML, 외국 정상에 첫 클린룸 공개로 화답
이재용·최태원 회장 동행해 반도체 기술 협력 MOU도 체결

방문 기업으로 ASML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Ven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ASML 측에서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윤 대통령에게 클린룸을 공개해 협력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빌럼-알렉산더 국왕도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전 주기의 생산 공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ASML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불안정해진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주요 축이다.

메모리 분야 전 세계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

장이 동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 국왕은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ASML은 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고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용별로 ▲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네덜란드 외교부) ▲ 1조원 투자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의 한국 설립(삼성전자-ASML) ▲ EUV 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SK하이닉스-ASML)이다. / 송원기 기자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

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과 후원조직인 ‘평화와 면고사는 문제 연구소’(역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역사연 기부금 및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8억2천만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 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내 6천650만원 살포 개입 의혹…인허가 대가 4천만원 뇌물 혐의도

검찰 “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宋 “정치적 기획수사” 혐의 부인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헌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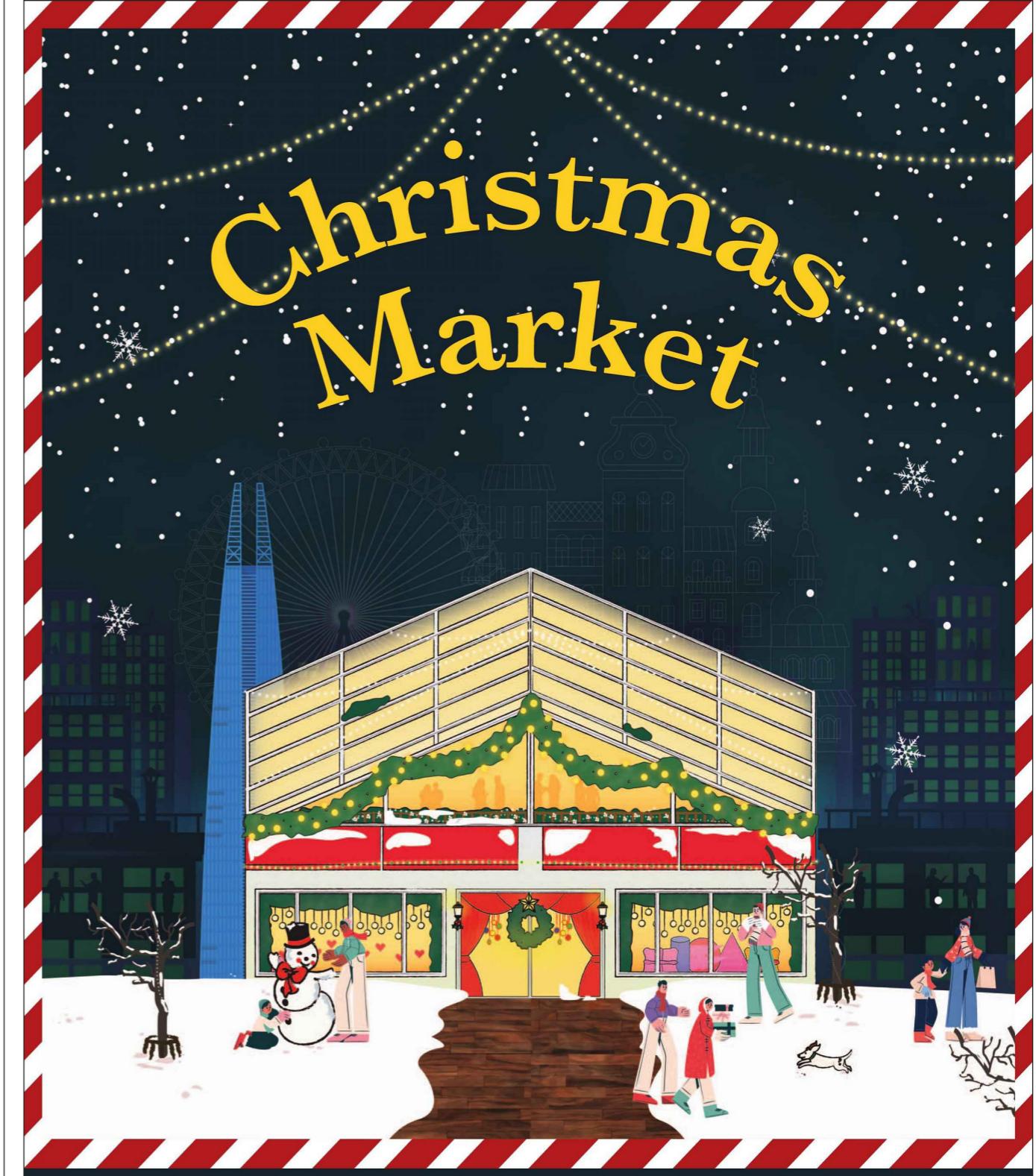
2021년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천 만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했고,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 자진출두가 무산된 뒤 이뤄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후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현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으로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본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

/ 조규혁 기자



2023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마켓

11.24 - 12.25 |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광장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

연장 영업시간 안내 | 서울 및 수도권 전철 11호 매주 금 - 일 오후 8시 30분까지



지역인재전형 확대할 듯…복지부 “의사, 지역정착 장치 검토”



조규홍 장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부산 지역 간담회 참석

정부가 지역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부산시 병원협회장, 각 대학 병원장 등과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기여하게 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대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 있는 부산대와 동아대 의대는 해당 지역 출신 여부를 고려하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생 80% 이상을 뽑고 있는데, 복지부는 지역 정착 효과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현장 호응이 좋다”며 “이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조 장관에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

인재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인력 구

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병원들과 협의해 일부 수련 병원에 시범 적용하는 등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 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원역 임상 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전공의의 권리 보호 전담 창구를 신설해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 상황과 수련 환경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정책 주체인 수련 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의 참여를 늘린다.

/ 황경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홍일 “법률지식 토대로 방송 독립성 위해 방통위원장직 수행”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노력 권익위원장은 적절한 시기 정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가짜뉴스 근절과 공영 방송 개혁, 포털 규제 등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물음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고, (권익위원장 자리는)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2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후 취임하면 1호 의결 안건은 지상파 UHD 등 재허가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은 연말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 박형철 기자

국토부, KB국민은행·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손

국토교통부는 13일 KB국민은행,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

치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 법률 조치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피

해지원센터 인근에 KB국민은행의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받고,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

가·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피

해지원센터 인근에 KB국민은행의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받고,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

한총리 “내집마련 청년, 청약 당첨되면 2%대 금리·40년 대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올리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마포구 DMC 타워에서 주재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임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등이 안건에 올랐다.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 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학생·자립준비 청년·구직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대폭 확대 ▲ 민간기업 협력 일 경험 기회 확대 등도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국가 자격증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한국형 대중 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홍명섭 기자

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늘리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국가 자격증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한국형 대중 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고내용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의명신고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라데온 주가조작 사태’ 등이 벌어진 이후 금융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신고 및 제보가 혐의의 적발과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천800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했다.

또 보다 많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익명신고 이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고와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조규돈 기자

김기현, 이틀째 '집행'…당내선 거취 방향 놓고 설왕설래

내일 당 최고위, 모례尹대통령 귀국…金 결단 시점 주목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 압박에 내몰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당 대표실이나 의원회관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전날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채 모처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도 취소했다. 김 대표가 거취 문제로 고심하며 장고에 들어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당내에서 김 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과 접촉하며 거취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5일 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재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환송 나온 김기현 대표

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표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중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거취 결단 방향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총선 패배 위기감이 증폭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이날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여태까지 너무 많은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김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 출마는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당이 함께 짰으면 좋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하 의원은 "낙동강 벨트를 이기기 위해 김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 면이 있다"며 "김 대표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온다는 건 본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실제 수도권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 출마를 준비하는 김용남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분들은 김 대표가 대표직

을 사퇴하고 울산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전체 총선 판에는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대표직 사퇴 여부"라고 했다.

비주류 중진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두 가지 카드 중 하나를 들고나올 것 같다. 총선에서 승

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을 내세우든지 또는 대표직 사퇴 카드를 내놓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거취 결단 타이밍이 늦어져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선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총선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따로 놓고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영남권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전이라면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만 해도 됐겠지만, 이제 시간이 같수록 내줘야 하는 게 더 커지게 됐다"며 "김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당 대표 사퇴와 불출마 선언을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대표직은 사퇴하되 지역구 출마를 유지하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총선 앞 당의 혼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원들이 뽑았으니 당 대표로서 직분을 다 해야 한다"며 "정통성을 가진 당 대표가 나가고 비대위가 들어서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가 떠밀리듯 거취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송유경 기자



연설하는 이준석

이준석 "국힘 잔류 가능성 없다 이낙연 연대, 열어놓고 생각"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에 대해 "나는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활동 이력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라며 "그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거고, 큰 정치인이 움직일 때는 명분을 아주 크게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서 만나더라도 함께 일할 가능성은 낮다"며 "김건모의 '잘 못된 만남', 그런 가사와 비슷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가수 김건모의 히트곡 중 하나인 '잘못된 만남'은 친한 친구에게 애인을 소개해줬다가 애인을 빼앗기는 가사로 데 있다. 이른바 '낙준 연대'를 애초에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 만남에 비유한 것이다.

/ 박현준 기자

저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막걸리 회동을 한 것 정도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활동 이력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라며 "그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거고, 큰 정치인이 움직일 때는 명분을 아주 크게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서 만나더라도 함께 일할 가능성은 낮다"며 "김건모의 '잘 못된 만남', 그런 가사와 비슷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가수 김건모의 히트곡 중 하나인 '잘못된 만남'은 친한 친구에게 애인을 소개해줬다가 애인을 빼앗기는 가사로 데 있다. 이른바 '낙준 연대'를 애초에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 만남에 비유한 것이다.

/ 박현준 기자

"멋없게 이기면 세상 못바꿔"...이탄희 '연동형 총선' 불출마 선언

"선거제 퇴행만은 안돼...與와 야합 무리수 두면 총선 구도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탄희 의원이 13일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 중도의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반사이익으로



불출마 선언하는 이탄희

탄생한 중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린다"며 "국민의 정치 혐오를 자극해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나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제2, 제3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의총을 앞두고 다른 의원들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했다.

김관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병립형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배신이고 국민 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이런 일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신영철 기자

與 '1호 영입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약자 대변할 것"

예비후보 등록...“법·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해 나서기로”



그는 등록을 마친 후 "제가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과 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영어와 미성년, 성매매 여성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과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천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천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지역구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매田동, 원천동, 광교동 등이 속해 있다.

애초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홍종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이 교수와 홍 당협위원장은 전날 만나 이 교수의 출마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순철 기자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실험_기업안전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_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_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_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공범…두달째 ‘오리무중’

경찰, 공갈 사건 윤과 드러나면 이씨 불러 3차 조사할 듯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2개월째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함께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 행진 B씨를 쫓고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 달 3일 먼저 구속 기소됐으나 공갈 혐의를 함께 받는 B씨는 2개월째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신도 B씨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을 함께 고소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



경찰조사 받으려 출석하는 이선균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 사건은 조만간 혐의의 없음으로 인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인 연예인들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면 경찰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보강수사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사 A씨를 통해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향정)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인원을 보강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3명 외 추가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아버지와 중독자 돋는게 꿈”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의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 신성진 기자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한상진 기자 “진실 가깝게 보도…’윤석열 커피’ 프레임은 악의적”



구호 외치는 뉴스타파 직원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 타파 한상진(50)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위, 보도 내용·시점 등을 놓고 뉴스타파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 백신 반부처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뉴스

한 기자는 오전 9시55분께 검찰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지금도 저희 보도가 진실에 가까운 보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만배 씨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석열이 아닌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은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이유를 묻자 “일부 편집·발췌는 불가피한 일이다”라며 “커피를 윤석열이 타 줬는지, 직원이 타 줬는지는 그때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기자는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건을 무마했는지”라며 “윤석열이 타 주지 않고 직원이 타 주면 사건이 없어지나.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 자체가 악의적이고 문제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씨 사이의 돈거래를 미리 알고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싸우겠다”며 “수사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보도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였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봉지국 전 JTBC 기자와 김용진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대선을 앞두고 일련의 보도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 임선우 기자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한호성 기자



고객의 마음에 웃음을!
SK가스가 드리겠습니다

국내 LPG산업의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전진하는 SK가스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고객만족’ –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청정에너지 회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커로의 Vision을 갖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World Best를 추구하는
SK가스 –

SK 가스

TEL: (02) 6200-8114 FAX: (02) 6200-8118
Homepage : <http://www.skgas.co.kr>

국제입지 키우려는 예멘반군…가자전쟁 확전 우려 키운다

무력투쟁으로 아랍권 인기…예멘내부 영향력 확대 노림수도



예멘 반군 후티가 장악한 수도 사나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침투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확전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후티는 12일(현지시간) 홍해의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노르웨이 선적의 유조선 '스트린다호'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미사일 공격 후 후티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스라엘이 구호물자의 가지지구 반입을 허용할 때까지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해에서 선박을 겨냥한 도발적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예멘의 후티는 미사일과 선박 공격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후티가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을 분석했다.

NYT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

사하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함으로써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예멘 내 권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내 영향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

고 강조했다. 실제로 후티는 최근 다양한 무력 도발로 홍해의 긴장 지수를 잔뜩 끌어올렸다. 지난 10월 말 미사일과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이스라엘 남부의 홍해 휴양도시 엘리아트를 향한 공격을 시도했다.

11월에는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서 소형 유조선 '센트럴파크호'가 후티에 나포됐다가 미국 해군에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후티는 지난달 드론으로 홍해를 정찰하던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

후티의 이런 행보는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NYT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사람들은 후티가 거친 말을 넘어 이스라엘과 맞서는 유일한 세력으로 환영해왔

다"고 분석했다.

예멘 수도 사나의 한 의료품 회사에서 일하는 칼리드 누자임은 "모두가 한가하게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후티)은 우리에게 존엄을 줬다"고 말했다.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등 많은 아랍권 이슬람 국가가 가지지구의 민간인 참사를 비판하고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스라엘의 'マイ웨이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실이다.

아랍권 주민들은 가지지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강조하는 후티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후티의 도발은 예멘 내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노림수로도 읽힌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소속 국가안보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요엘 구잔스키는 "결국 그들(후티)이 원하는 것은 예멘 내 지분을 키우는 것"이라며 "아마 그들은 국제적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후티는 1990년대 후반 이슬람 시아파 분파인 자이드의 부흥 운동을 벌이며 예멘 정부,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빚었고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며 내전을 촉발했다.

현재 후티는 예멘 북부와 인구가 많은 다수 도시를 장악하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남부 예멘에 있는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와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후티는 역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가지지구 전쟁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리아 알무슬리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분석했다.

후티가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성명에서 "예멘 군대"라고 자칭한 점은 예멘 남부의 정부나 다른 무장세력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나아가 후티가 예멘 내부 문제를 회피하려고 국제적 도발을 일으킨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김민재 기자



로힝야 난민들

"로힝야 난민 부담 나누자" 인니, 국제사회에 도움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가 밀려드는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에 부담을 나누며 도움을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무하마드 이크발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네시아는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음에도 수십 년 동안 인도주의적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는 데 그쳤다며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로힝야족 사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난민 문제, 특히 재정착 문제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 해결 노력에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이다. 이전부터 미얀마 내부에서 탄압받다가 2016년 미얀마 정부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대거 피신했다. 하지만 난민 수가 급증하고 일부 난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하면서 이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다.

결국 난민들은 아체주의 정부 청사 내 임시 공간에 머무는 상황이다. / 신지호 기자

미·유럽 성탄절 테러 경계령…“어려진 ‘외로운 늑대’ 주의”

유대인·무슬림 많은 독일·프랑스도 긴장…“20세 미만 극단주의자 경계”



10월 애틀랜타 앞 파리 경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일제히 성탄절 연휴에 극단주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다.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공격에 격해진 이슬람의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를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동에서 이어지는 전쟁 틈에 미국 내에서 성탄절, 연말연시에 잠재적 치안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다.

FBI와 DHS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관련된 계속되는 긴장으로 겨울에 걸쳐 군중 모임을 겨냥한 단독 행위자의 폭력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발표가 사전에 계획된 특정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념에 자극을 받은 단독 행위자가 이러한 표적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FBI와 DHS는 앞서 하마스 기습으로

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일 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20대 프랑스 국적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용의자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당국도 각각 자생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뜻하는 '외로운 늑대' 경계령을 내렸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로 꼽힌다.

독일 안보 당국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독일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서방을 겨냥한 테러 공격 가능성의 잠재적 위협이 커졌다"고 밝히고, 특히 극단주의에 빠진 개인이 단독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프랑스 국내안보총국(DGSI) 당국자도 현지 매체인 르몽드 인터뷰에서 IS가 하마스와 선을 긋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형제들"과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용의자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면서 올해 적발된 테러 모의 3건에 모두 20세 이하 용의자가 연루돼 있다고 분석하고, 최연소는 13세라고 덧붙였다.

독일 한 당국자도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젊은층 무슬림이 인터넷 허상 속에서 점점 극단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을 찾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신승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공급망 위기시 함께 극복”

“반도체 동맹 공식화는 양국 모두 처음...치열한 협상을 끝으로 결정”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피터 베링크 ASML 최고경영자(CEO), 빌리-알렉산더 국왕(오른쪽)과 함께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르크 브뤼터 총리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브뤼터 총리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암스테르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네덜란드 양국은 반도체 분

야에서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짐행하고 이행해나가는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양국 공동성명에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도체 동맹'이란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간 안보 협력과 마찬가

지로 반도체 협력 강화의 목표와 의미,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경제 안보의 핵심 이익을 결정하

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 당국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 당국은 또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대화를 설치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김 차장은 “경제 안보·산업정책에 관한 다양한 양자 협의 체널 신설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 공급 협력 관련 MOU 체결은 반도체 동맹의 구축을 가속화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맹 체결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지닌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 성명문안에 특정 국가와의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고, 네덜란드로서도 처음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빈 방문을 떠나기 전부터 국가안보실이 집중적으로 공동성명문안에 대해 직접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네덜란드도 깊은 고민 끝에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전부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관계를 반도체 동맹 관계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장비 공정도 참관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이 자리에서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삼성전자와 ASML은 내년부터 1주년 규모 공동 투자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 송원기 기자

매매(별도)	매매(별도)	급 매매(별도)	급 매매(별도)	매매(별도)	매매(별도)
독립동 (기수 2~3개)	독립동 (기수 2~3개)	91년식 6.5평 / 8.95평	91년식 6.5평 / 8.95평	녹번동 (기수 2~3개)	녹번동 (기수 2~3개)
5년식 6.4평/11.2평	5년식 6.4평/11.2평	2층 8평, 하이·베란다	2층 8평, 하이·베란다	전용 3.0평 / 전용 15.5평	전용 6.2평/지상 3.97평
4층 7.5%, 복 2.8%, 1~4층	4층 7.5%, 복 2.8%, 1~4층	임대가능 1억 7천	임대가능 1억 7천	(단지, 1층, 2층, 3층, 4층, 5층)	12년식, 1.5층, 501호
대장 : 전용 925.3m ²	대장 : 전용 925.3m ²	공주가 : 7500만원	공주가 : 7500만원	현대가능 : 1억 1400만원	현대가능 : 1억 1400만원
면적 : 2억 1천	면적 : 2억 1천	면적 : 5~7평	면적 : 5~7평	임대가능 : 2억 3천	임대가능 : 2억 3천
2억 8천	4억	전	전	4억 5천	4억 5천

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 협력한다 국토부와 확정일자 정보연계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 전부터 국가안보실이 집중적으로 공동성명문안에 대해 직접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네덜란드도 깊은 고민 끝에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전부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관계를 반도체 동맹 관계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장비 공정도 참관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이 자리에서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삼성전자와 ASML은 내년부터 1주년 규모 공동 투자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천

100개 지점)은 전산 개발 및 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된다.

예컨대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 후순위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따지면 7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출액이 5억원으로 감소한다.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김희영 기자

TV홈쇼핑업계 “데이터홈쇼핑 채널 생방송 허용 반대...과당경쟁”



TV홈쇼핑업계 “데이터홈쇼핑 채널 생방송 허용 반대”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은 차별성이 없고 오로지 채널 번호에 의존해 이미 한계에 부닥쳤다”며 “생방송 허용 등 과열 경쟁을 심화하는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차별성이 없고, 왜 이렇게 많은 상업 방송에 노출돼야 하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7개 채널과 녹화 방송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는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을 TV에서 이용할 수 있다.

TV홈쇼핑 채널은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 흑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데이터홈쇼핑 채널은 SK스토어, KT알파쇼핑, 쇼핑엔티티알엔, W쇼핑, 신세계쇼핑 등이다.

/ 최진숙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뜻데가 응원합니다

가까운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환절기, 건강 관리 가전

건조한 가을, 홈 케어 가전

하이메이드
마사지기
HME-01G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4D인체 힘마사지
판매가 4,280,000원

하이메이드
세척기
HME-EMB
간접 세척기 + 초음파 동시 가동
판매가 149,000원

하이메이드
비데
HME-G05WH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스마트리모노 풀무수제
판매가 149,000원

하이메이드
건마기
HME-HPK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인체형 힘마사지
판매가 39,900원

하이메이드
무선건마마사지기
HME-MSK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인체형 힘마사지
판매가 99,000원

하이메이드
세척기
HME-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인체형 힘마사지
판매가 49,000원

하이메이드
센서기
HM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232,000원

하이메이드
센서기
HM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259,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하이메이드

기술기
HME-EMB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59,900원

하이메이드
센서기
HM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66,000원

하이메이드
세척기
HME-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149,000원

하이메이드
비데
HME-G05WH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스마트리모노 풀무수제
판매가 149,000원

하이메이드
건마기
HME-HPK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인체형 힘마사지
판매가 39,900원

하이메이드
무선건마마사지기
HME-MSK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인체형 힘마사지
판매가 99,000원

하이메이드
세척기
HME-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49,000원

하이메이드
센서기
HM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232,000원

하이메이드
센서기
HME-SW
하이메이드X코마 퀄리브
센서기
판매가 259,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인기 화장품 한자리에...CJ올리브영, DDP서 어워즈&페스타

CJ올리브영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한 해 동안 인기 있었던 상품을 토대로 트렌드를 소개하고 상품경쟁력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올리는 모두 79개 브랜드가 단독 부스 등을 마련하고 고객과 만난다.

현장에서는 구달, 닥터지, 라운드랩, 마

녀공장, 아비브 등 올리브영과 함께 성장해온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해볼 수 있다.

올해는 ‘트렌드 랩’ 코너를 신설해 내년의 뷰티·헬스 시장을 전망해볼 수 있도록 했다. 올리브영은 내년에는 뷰티와 헬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바운드리스’(Boundless) 가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리브영의 역사와 화장품 시장 전반

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

돼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글로벌 브랜드 관계자들도 초청해 중소 유망브랜드의 성장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로프트 같은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 해외 60개사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국내 중소기업의 유망 상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날에는 스타트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퓨처케이블’,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각각 열고 내년도 성장 전략과 노하우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1만5천여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소희 기자

SAMSUNG

가장 높은 곳에서

조 용 히

그 러 나

영 원 히

빛 나 는

시스템에어컨, 그 위에

BESPOKE 무풍 시스템에어컨 Infinite Line

와이드 무풍 냉방

Windfree™는 무풍 기능을 의미하며,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으로 정의

* KS-QEI '19-'23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스템냉난방기 부문 5년 연속 1위

인피니트 디자인

엣지 라이팅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김동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당 지도부에 강력한 입장 재차 전할 것”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도당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의 문제를 다 풀려고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유가족 협의회에 약속했다.

이에 이 운영위원장은 “도지사의 진정

성 있는 위로와 공감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느끼고 위안받았으면 해서 오늘 간담회를 요청했다”며 “특별법으로 농성을 하는 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유족 김호경씨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의 31번째 생일이다. 참사가 없었더라면

면 가족·친구들과 축하를 받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 다시 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4일 참사 100일 때 녹사평 분향소 방문, 4월 5일 10·29 진실 버스 수원현장 방문, 6월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나 위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참사 1주기를 맞아 계시판 형태의 기존 주모 공간을 별도의 누리집으로 독립시킨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www.gg.go.kr/memory)’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흥의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석호 기자



고속철도 탑승

양산 물금역에 29일부터 KTX 정차 국토부·코레일 최종 승인

인구 36만명의 경남 양산시에 고속 철도(KTX) 정차 시대가 열린다.

양산시는 오는 29일 오전 6시 35분

KTX 물금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첫 고속철도가 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물금역에서 주말(금·토·일) 12회(편

도 기준 6회), 주중 8회(편도 기준 4회)

정차한다. 물금역에 정차하는 KTX 열

차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코레

일 예약사이트 ‘레츠코레일’에서 예매

할 수 있다. 물금역에서 출발하는 서울 행 KTX 첫차는 29일 오전 6시 35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소요 시간은 2시간 40분대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KTX 운행노선 조정안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 이번 KTX 정차로 4개 산업단지가 있고 500여 개 주요 기업 본사 및 1천

600개 공장 등이 위치한 양산시는 기업활동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그동안 국토부

등에 시 현안인 물금역 KTX 정차를 계

속 건의해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물금역 KTX 정차는 당초 내년 하반기

에나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등과 수십차례 회의를 거치고 협조를

끌어내 정차 시점을 1년이나 대폭 앞

당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물금역 KTX 정차로 서

울·경기·충청권 지역과의 이동 편의성

이 대폭 향상됨으로써 인적 교류 확대

와 기업 경영 활동 편의성 증진으로 양산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부산 한 청소용역업체, 유령직원 등재해 2억원 횡령”

노조 주장에 업체는 “사실무근” 반박

고 반박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3일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 청소용 역업체 A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일부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퇴직자, 퇴직자 아내, 구내식당 전 근무자, 관리자 자녀 등 7명을 임금지급 대장에

올리고 총 2억2천600여만원의 월급을 챙겼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A사가 연제구로부터 받은 직접 노무비를 남기면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구의원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A사 임금지급 대장과 실제 근무한 직원

을 비교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구는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임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사 경영진은 “연제구는 임금대장 등 재 직원들의 신분 확인을 시도로 벌여왔다”며 “노조의 주장은 과거의 일일 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연제구는 노조가 밝힌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 백서윤 기자

고속도로 차량 화재 진압 맹호부대 장병들, 도지사 표창 받아



도지사 표창 수여식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를 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나 화제가 됐던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 장병들이 12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맹호부대 예하 돌진대대 대원들과 송하빈 하

사에게 ‘생명 보호 의인’ 도지사 표장을 수여했다.

장병들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호국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갓길에서 불붙은 SUV 차량을 발견,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벌였다.

/ 배성현 기자

이후 현장에 소방관들이 도착하면서 불은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고, 이를 본 장병들은 소속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의 선행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장병들의 소속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송 하사는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었는데 화염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모습을 보고 바로 소화기를 꺼내 진화작업을 했다”며 “저희가 큰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한 화재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진화를 위해 노력한 장병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배성현 기자

동두천 시민들, 정부에 미군기지 반환·특별법 제정 등 촉구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 위원회는 13일 낮 1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동두천 시민, 국방부 앞에서 총궐기대회, 동두천 시민, 국방부 앞에서 총궐기대회 [동두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박형덕 동두천 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범대위 관계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범대위는 이날 행사에서 10년 전 약속 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4개 요구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요구안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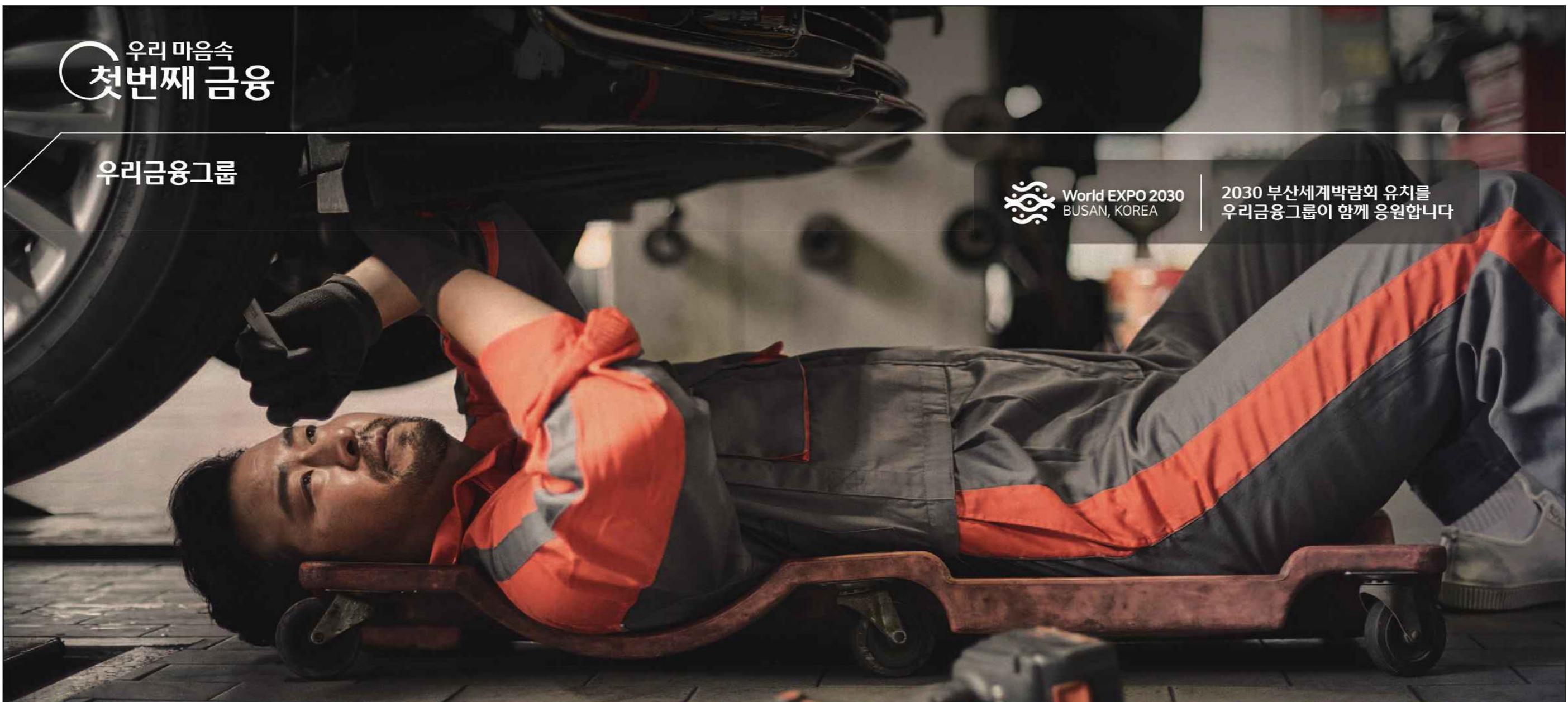
동두천 시민, 국방부 앞에서 총궐기대회

각적 반환, 평택과 같은 동두천 특별법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 개발, 경기북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시 전체 면적

/ 서정균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중증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법무병상 성남시의료원에 설치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체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인 시의료원을 활용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치료지원과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료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총원 협력체계 구축



▲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 일상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 인원과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2천607명(5.4%)이던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인원과 비율은 2022년 5천622명(10.8%)으로 9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문 의료 인프리를 갖춘 시 의료원에서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 정희철 기자



혁기버스 탑승한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 '혁기버스' 이용객 6개월 만에

73% 증가…49.6% '만족'

운행에 나선 지 6개월째를 맞은 급행 시내버스인 111번 일명 혁기버스(혁신 기업버스)가 원주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시내버스는 45개소 정거장에 정차하지만, 혁기버스는 14개소의 정거장만 정차하기 때문에 이용객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탑승객 22% KTX역 이용

배차간격단축 개선 요구 37.8%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시행한 혁기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4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 44.2%, 불만족 6.2%

등이다. 개선 사항 질문에는 응답자의 37.8%가 배차간격 단축, 16.1%는 첫차 운행 시간 조정을 꼽았다.

혁신도시~도심(역·터미널)~기업도시를 잇는 혁기버스는 지난 5월 30일 첫 운행에 나섰다.

/ 황순길 기자

'초실감 메타버스' 온다…촉감 표준 용합연구단 출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한국 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감

나는 메타버스 구현에 나선다. 표준과학연은 13일 대전 본원에서 '촉감 표준(Meta-Touch) 용합연구단' 출범

현판식을 했다.

이 연구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을 받아 2029년까지 6년간 390억원을 투입해 시각·청각을 넘어 촉각까지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촉감 표준 및 햅틱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총괄 주관기관인 KRISS를 필두로 KAIST, ETRI가 주관기관을 맡아 총 5개 용합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성균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아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경희대학교 등도 참여한다.

연구단은 촉감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고성능 촉감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촉감 센서 소재 및 소자, 초실감 촉감을 재현할 액추에이터, 초실감 촉감 렌더링 기술 등이다. 이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메타버스나 게임 환경에서 몰입감을 배가시킬 통합 햅틱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김민석 촉감표준 용합연구단장은 "촉감 상호작용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 표준 기술 주도로 메타버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햅틱 시장 선점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양한 산학연 참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동북아 물류 플랫폼 부울경 경제공동체 중심지 김해가 최적지"



경남 김해시는 12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동북아 물류 플랫폼 정책세미나'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공동체 중심지인 김해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최적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와 연계한 복합물류 기반 구축과 배후 권역 개발 등을 위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연 세미나에서 시 핵심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를 위한 사업 구체화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다졌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국가 주요사업 김해 대응전략 및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하동원 한국융합관광연구소 소장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키워드로 김해시가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관광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엔 성결대 교수는 앞으로 건설될 기더도 신공항과 연계한 김해시 전략 구상을 밝혔다.

권익현 인제대 교수는 '스마트 물류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김해의 기회'를 주제로 김해 지역 제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권 교수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으로 지역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부·울·경 경제공동체 중심 역할을 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를 통해 시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드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현우 기자

군공항 이전반대 무안 주민들, 군수실 출입구 봉쇄

김영록 전남지사 참석 '도민과 대화' 행사 파행

13일 오후 2시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민과의 대화'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무안군청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김산 무안군수의 '도민의 대화'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군수실에서 김 군수와의 릴레이 면담

을 요구하며 김 군수의 외부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김 군수는 정오 무렵부터 두 번에 걸쳐 '도민과 대화' 참석을 위해 무안군청 1층 현관으로 내려왔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다시 군수실로 올라갔다.

주민들은 '김 군수는 도민과의 대화 참석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군수의 행사 참석을 막았다.

김영록 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는 김 군수가 군청을 빠져나가지 못한데다 김



군수 진입이 늦어지면서 1시간 이상 지연된 후 김 군수 불참상태로 시작됐다.

/ 성경호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5th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50th Anniversary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 01 총 자산 20조원 | 02 선박금융 공급 1위 |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통급



예금과 주식 사이
그 곳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도 신한투자증권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알파 앱,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com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133호(2023년 2월 3일 ~ 2024년 2월 2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63호 (2023년 02월 06일 ~ 2024년 02월 05일)

이정후, MLB 한국인 포스팅 최고액…SF와 6년 1천484억원 합의

샌프란시스코·이정후 측 공식 발표 전이지만 현지 소식통 일제히 보도

이정후(25)가 6년 1억1천300만달러(약 1천484억원)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입단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뉴욕 포스트 존 헤이먼, 디에슬레티크의 켄 로젠텔 기자 등 미국 현지 대표적인 소식통은 13일(한국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천300만 달러에 입단 합의했다. 계약서에 4년 뒤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 조항이 포함됐다”고 썼다.

아직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이정후 측은 입단 합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헤이먼, 로젠텔 기자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정후는 한국 선수의 베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역사를 새로 쓴다.

앞서 류현진이 2013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간 3천600만달러(연평균 600만달러)에 계약하며 한국프로야구를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아울러 현재까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



샌프란시스코·이정후 측 공식 발표 전이지만 현지 소식통 일제히 보도

최대 규모 계약이었다.

타자 중에서는 이정후의 절친한 선배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021년 샌디에이고와 한 4년 2천800만 달러(연평균 700만 달러) 계약이 최대 규모였다. 연평균 보장액은 김하성이 류현진보다 높다. 이정후는 종액 규모와 연평균 금액(1천883만달러)에서 모두 류현진과 김하성을 넘어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베리거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으로 시야를 넓혀도 이정후는 역대 종액 2위가 된다.

추신수는 2014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3천만 달러에 계약했다. 연평균 금액은 당시 추신수가 1천857만 달러로, 1천883만달러의 이정후가 더 높다.

류현진은 2020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달러에 계약했다. 한국인 베리거 평균 연봉(2천만 달러) 최고 기록이다.

이정후는 계약 종액은 추신수에 이은 2

위, 평균 연봉은 류현진 다음으로 높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는 2022년 한국프로야구 KBO 리그 최우수선수에 오르는 등 7시즌 동안 타율 0.340, 65홈런, 515타점, 69도루, 581득점으로 활약했다. 2023시즌 종료 뒤 원소속구단 키움 히어로즈의 동의를 받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한 이정후는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았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 “이정후의 아버지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의 현역 시절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다.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라는 멋진 별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가장 적극적인 구단은 샌프란시스코였다. 고프 페델라 샌프란시스코 단장은 지난 10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이정후의 플레이를 눈에 담기도 했다.

이정후의 협상 기한은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속전속결로 이정후와의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 최준용 기자



‘찬란한 장충의 봄을 향해’ 우리카드, 성적도 흥행도 일등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가 ‘화려한 장충의 봄’을 꿈꾼다. 우리카드는 반환점을 향해 달리는 2023-2024 V리그 남자부에서 성적과 흥행 모두 1위를 달린다.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의 홈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

으로 패하기 했지만, 우리카드는 승점 31(11승 4패)로 2위 삼성화재(승점 25·10승 5패), 3위 대한항공(승점 25·8승 6패)에 승점 6차로 앞서 있다.

3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과의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승리해 자신감은 더 커졌다. 올 시즌 우리카드는 주전 세터로 2004년생 한태준을 내세우는 등 ‘재창단 수준’으로 구성원을 확 바꿨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이번 시즌 우리 팀은 재창단 수준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애초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됐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김지한과 세터 한태준이 성장하면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며 “모든 선수가 잘 따라줘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 이상이다.

신 감독은 “기록만 보면 우리가 1위를 달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며 “3리운드가 끝나면 비결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실제 우리카드는 공격 성공률 51.65%로 이 부문 7개 구단 중 6위에 그쳤다.

하지만, 서브 리시브 효율 42.57%(2위), 디그 세트당 10.684개(2위)의 훌륭한 수비를 펼치고, 블로킹 득점 세트당 2.421개(1위)의 탄탄한 벽을 쌓으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흥행 성적도 좋다. 12일까지 우리카드는 홈 평균 관중 2천766명으로 1위를 달린다. 남자부 평균 관중 1천676명보다 1천90명이나 많다. 지난 시즌에도 우리카드는 평균 관중 2천609명으로 남자부 1위에 올랐는데, 올해는 더 높은 수치를 찍고 있다.

우리카드의 고급화 전략과 스타 마케팅도 주목받는다. 우리카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엄’, ‘김지한99’, ‘베이직’ 등 3개의 멤버십을 선보였다. 전 경기 프리미엄 테이블석 2인 지정석 등을 제공하는 200만원의 프리미엄 멤버십은 10개 팔렸다.

‘김지한 박스 선예매’, 지정석 무료 예매권 1매’ 등을 제공하는 김지한99 멤버십(9만9천원) 99개는 완판했다. 6만원짜리 베이직 멤버십 300개도 모두 팔렸다.

‘타이징 스타’ 김지한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도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카드는 홈 장충체육관 관중석에 김지한의 팬을 위한 ‘김지한 박스’를 마련했고, 경기장 내 매점과 연계해 김지한 세트도 출시했다.

김지한의 별명인 복숭아를 떠오르게 하는 복숭아 아이스티, 팝콘, 김지한 포토카드로 구성한 김지한 세트는 매 경기 250개 이상 팔린다.

우리카드 구단은 김지한의 포토카드를 가장 많이 모은 팬 30명에게 김지한 팬미팅에 참석할 기회도 준다.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는 ‘빅토리 포토타임’도 열린다.

올 시즌 우리카드는 ‘SPIKE THE SEOUL(스파이크 더 서울)’, 거침없이 우승까지’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 박재호 기자

프로야구 두산, 음주운전 적발 숨긴 포수 박유연 방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포수 박유연(25)을 방출했다.

두산은 13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연은 2023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유연은 해당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구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산고를 졸업한 박유연은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 전체 60순위로 두산에 입단했다.



고교 시절부터 일발장타를 가진 포수로 기대를 모았고 입단 첫해인 2017년 주전 포수 양의지의 부상 때 잠시 1군에 올라왔다.

박유연의 1군 통산 성적은 28경기 타율 0.250(36타수 9안타), 3타점이다.

박유연은 1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타격에 재능을 보여 ‘1군 백

업 포수 자원’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도 않아 그라운드에 설 기회마저 잃었다.

KBO리그는 음주운전을 한 선수에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두산은 KBO가 박유연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전에 방출의 철회를 내렸다.

지난달 롯데 자이언츠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긴 내야수 배영빈을 방출했다.

KBO는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을 내리고 음주운전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추가했다.

/ 민정섭 기자



강원도체육회,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단독 유치

강원도체육회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단독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국비 3억여원을 지원받아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동계체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시도별 유치 신청지 공모를 시행했다. 도체육회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치 활동을 벌였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전국 동계체전의 분산 개최로 전국종합대회의 격에 맞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대회 유치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오영찬 기자



adidas

www.bitscorp.co.kr

‘이재, 곧 죽습니다’ 서인국 “삶의 소중함 느끼게 해준 작품”

하병훈 감독 “대역 없이 원초적 액션 장면 많이 넣어”



“평범하고 익숙한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 주연 서인국은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원작 웹툰의 편이었고, 웹툰을 봤을 때도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크게 느꼈다”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5일 공개되는 ‘이재, 곧 죽습니다’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최이재(서인국)가 죽음(박소담)이 내린 심판에 의해 열두 번의 죽음과 삶을 겪게 되는 이야기다.

서인국은 죽음의 심판대에 오른 취업준비생 최이재를 연기한다. 그는 “죽음은 최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앞둔 열두 명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아야만 하는 인물이다.

서인국은 이재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인물”이라며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좌절감을 느낀다. 죽음에 직면하기까지의 입체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웠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배우가 함께 작업하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최이재가 하는 행동으로 보이게 될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했다.

박소담은 최이재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죽음을 연기한다. 그는 “죽음은 최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고 생각해서 이재의 감정에 굉장히 집중했다”며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최이재의 선택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가 진심으로 느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본분을 읽으면서 스스로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울기도 했다”며 “작품을 보시면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앞둔 열두 명의 인물은 김지훈, 김강훈, 최시원, 이재우, 오정세 등이 연기한다. 그들은 나이도, 성별도,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다.

연출을 맡은 하병훈 감독은 “너무 많은 인물이 나와서 정신없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며 “다음에는 어떤 이재가 나올까, 어떻게 죽음을 피하게 될까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이어 하 감독은 “드라마 각색 작업을 하며 시각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대역 없이 원초적인 액션 장면을 많이 넣었고, 웹툰과 다르게 드라마는 매회 연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박태우 역·김지훈)를 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재, 곧 죽습니다’는 오는 15일 파트1의 1~4화가 전편 공개되며 내달 5일에는 파트2가 공개된다.

/ 이은정 기자



류준열·천우희·박정민 주연

‘더 에이트 쇼’ 내년 공개

류준열과 천우희, 박정민 등이 주연한 드라마 ‘더 에이트 쇼(The 8 Show)’가 내년에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를 내년 중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더 에이트 쇼’는 여덟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공간에 갇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버는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 드라마는 배진수 작가의 웹툰 ‘머니 게임’과 ‘파이게임’을 각색한 작품이다.

쇼에 참여하는 여덟명의 인물은 류준열, 천우희, 박정민, 이열음, 박해준, 이주영, 문정희, 배성우가 연기한다.

‘더 에이트 쇼’는 한재림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기도 하다. 한 감독은 ‘관상’(2013), ‘더 킹’(2016), ‘비상선언’(2022) 등의 영화를 연출했다.

/ 곽현주 기자

역사 앞에서 고뇌하는 영웅 이순신…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최후 결전 노량대첩 그려…김한민 감독 삼부작 마무리

우리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1545~1598)만큼 영웅 서사를 완결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몰린 임진왜란 때 백성에게 희망을 준 옥포대첩,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등 그의 빛나는 무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영웅 서사를 완결하는 마침표처럼 보인다. 평생 충의(忠義)를 헌신했던 그는 노량대첩 때 패퇴하는 왜군을 추격하다가 총탄에 맞아 전사함으로써 자기를 오롯이 역사의 제단에 바쳤다.

그의 장렬한 최후를 그린 영화가 나왔다.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이순신 삼부작의 마지막 편 ‘노량: 죽음의 바다’(이하 ‘노량’)다.

이순신의 영웅 서사를 완결하는 이 작품은 김 감독의 ‘명량’(2014)과 ‘한산: 용의 출현’(2022)을 잇는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순신은 “절대 이대로 원수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영화엔 ‘끝’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의 막바지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고뇌한다. 역사의

진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만, 이순신은 “이

렇게 적을 살려 보내면 이 전쟁을 올바로 끝낼 수 없다”고 일갈한다.

이순신의 마음엔 왜군의 침략으로 목숨을 잃은 숨한 백성과 전우들이 있다. 최후 결전의 바다로 가는 배에서 이순신은 전사한 전우들의 명단을 묵묵히 본다.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는 이순신의 고민에는 자기 삶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는 고민도 녹아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노량대첩에서 영웅에게 어울리는 죽음을 맞는다.

노량대첩을 앞둔 조선과 명나라 수군, 왜군 치하부의 이야기로 한 시간을 채운 이 영화는 나마지 전부를 노량대첩에 할애한다. 전투 장면만 한 시간 반에 달한다.



선상에서 벌어지는 백병전을 묘사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인 느낌이다. 주로 높은 곳에서 백병전을 내려다보던 카메라는 갑자기 그 속으로 들어간다.

김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약 10년에 걸친 이순신 삼부작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명량’은 국내 개봉작으로는 역대 최대인 1천761만명의 관객을 모았고, ‘한산’은 726만명이 관람했다.

20일 개봉. 152분. 12세 관람가.

/ 김유정 기자

임형주 9집 클래식 음반 주간차트 1위



팝페라 테너 임

형주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번째

독립 음반 겸 팝페

라 정규 9집 ‘라이

프 온 에어’(Life On Air)로 클래식 음반 주간 판매차트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디지엔콤이 13일 밝혔다.

‘라이프 온 에어’는 교보문고 핫트랙스,

신나라레코드, 알라딘 클래식 음반 판매

/ 백선희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K incheon Petrochem

CARBON TO GREEN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앤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네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이스온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내 재산 내 뜻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지금 바로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리빙트러스트
바로가기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1566-8004



유언대용신탁 13년의 노하우

2010년 출시 이후 13년간 축적된
상속 집행의 노하우와 솔루션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컨설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탈 케어 솔루션



1:1 맞춤형 상속설계

신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맞춤 플랜으로 상속 설계 및 이행



종합자산 관리 & 운용

상속 전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재산관리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수 : 신탁재산기액의 0.5%~1%, 집행보수 : 신탁재산기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116호 (2023.04.05~2023.11.30) * CC브랜드 230329-0454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241호(2023.04.05~2023.11.30)

하나은행